기억의 전유와 기억의 투쟁*
- 알제리전쟁 기념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 재 원

Ⅰ. 머리말
Ⅱ. 알제리전쟁 기억의 주기(週期): 망각에서 '기억과잉'으로
Ⅲ. 기억의 전유와 공식적 기념행위
Ⅳ. 기억의 투쟁과 '공동체주의(communautarisme)'
Ⅴ. 맺음말

Ⅰ. 머리말

2008년 3월 19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근처에 있는 브랑리 부두(quai Branly)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제리전쟁 종전기념식에 참석한 '알제리전쟁 재향군인 전국연합(FNACA)'[1] 회원들이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군복 대신 평상복으로 차려입은 그들의 가슴팍에는 훈장이 달려있었다. 어지러이 휘날리는 삼색기와 함께 그것은 참전용사들의 쓰라린 상처를 달래주는 상징물이었다. 참전용사들의 가족과 친지, 군 관계자, 호기심 어린 이들이 운집한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Mémorial national de la guerre d'Algérie et des combats du Maroc et de Tunisie)' 앞에서 FNACA 회장인 마렉(Wladyslas Marek)은 '기억의 의무'에 대해 연설했다.

> 알제리에서 전쟁이 종결된 1962년 3월 19일을 기념하는 오늘, 수천 명의 재향군인들, 유가족들, 국민 모두는 알제리전쟁과 모로코와 튀니지에서 전사한 이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 날을 전후하여 사망한 모든 민간인 희생자들과 프랑스정부에 의해 버려진 하르키(harki)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추모하고자 한다.
> … 기념한다는 것은 진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망각과 고통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곳은 전몰자들의 희생 앞에 그 누구도 역사를 날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용기와 충정의 마음으로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기억을 배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기억의 장소이다.[2]

그림 1, 2) 2008년 3월 19일,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 앞에서 거행된 알제리전쟁 종전기념식 장면

프랑스는 현재 자신의 식민지 과거로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오래 동안 역사의 주변부로 밀쳐놓았던,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지엽적으로 다루었던 식민지 문제는 공적 토론의 장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알제리 등 과거 프랑스 영토에서 활동하다 프랑스로 귀환했거나, 식민지 독립에 반대하며 망명한 현지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2005년 2월 23일 법은 식민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기억들 간의 전쟁(guerre des memoires)'을 촉발시켰다. 프랑스 해외 식민지, 특별히 북아프리카에서 이룩한 긍정적 역할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권장하는 이 법령 4조를 통해 국가는 식민지 문제에 대한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KRF-2005-AS0005)

1) FNACA(Fédération nationale des anciens combattants en Algérie, Maroc et Tunisie)는 1952년부터 1962년의 기간 동안 알제리전쟁과 모로코와 튀니지 전투에 참가했던 참전병사들이 결성한 협회이다. 정부기관이나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로서 37만 명의 회원과 전국에 걸쳐 있는 3,560개의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를 수호할 목적으로 창설된 이 협회는 『알제리 참전용사(*L'Ancien d'Algérie*)』라는 신문도 발행한다.

2) Le Comité Nationale de la FNACA, *Message pour le 19 mars 2008. 46e anniversaire du "cessez-le-feu" en Algérie.* http://www.fnaca.org(2008. 4. 10)

www.kci.go.kr

기억을 전유하고자 하였다. 거센 여론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이 조항은 철회하였으나, “알제리전쟁과 모로코와 튀니지에서의 전투를 기억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가의 지원 하에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3조항은 지식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탈식민화와 알제리의 독립을 둘러싼 ‘기억의 투쟁’이 진행 중인 것이다.

권력층의 기억만이 보편적인 기억으로 승화되고, 피지배층의 기억이나 여타의 불편한 기억들에 대한 망각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기성화된 기억문화, 더 나아가 전쟁기념 관행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20세기 후반에 적지 않게 발견된다. 최근에는 전쟁기념을 둘러싼 정치적·담론적 헤게모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거의 식민지-제국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활성화되었다. 전쟁기념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고정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제국과 식민지, 중심과 주변부, 사회적 주류와 비주류 간의 차별성과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비교사적 시각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 강점기 대독협력(자) 문제와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인 과거사 청산 문제에 해당하는 알제리전쟁 문제를 다룬 글이다. 오랫동안 의식적으로 잊고자 했던 식민지전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기억과 기념 문제를 다룬 글이다. 프랑스인들의 알제리전쟁에 대한 ‘과거성찰’의 문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문을 통해 이미 소개된 바 있다.[3] 본 논문의 기존 논문과의 차이점은 기억의 문제가 전제가 되나, 집단적 기억행위라 할 수 있는 기념 문제, 특별히 전쟁기념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기억의 정치학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는 점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전유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와 목적, 역할 등이 다양한 기념식과 기념일 제정 등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알제리 전문가’ 스토라(Benjamin Stora)가 ‘공동체주의(communautarisme)’라고 명명했던 알제리전쟁의 소위 ‘희생자 집단들’ 사이

3) 관련 논문으로는 알제리전쟁기의 고문과 폭력 문제를 다룬 노서경의 「알제리전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과거’성찰: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2호(2005년 2월); 알제리전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기억 문제를 다룬 이용재의 「알제리전쟁과 프랑스인: 식민통치의 상흔과 기억의 정치학」, 『역사비평』, 63호(2003년 여름); 역사교육 문제와 관련된 이용재의 「기억의 의무와 역사교육: 알제리전쟁과 프랑스의 역사교과서」, 『서양사론』, 77호(2003년 6월); 알제리 이주민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 문제를 다룬 박단, 「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인의 프랑스로의 이주와 정착」, 『한국프랑스학논집』, 53호(2006년 2월) 등이 있다.

에서 전개되는 기억의 투쟁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범람하는 알제리전쟁의 기억과 함께 등장한 수많은 전쟁 관련 집단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기념비 건립이나 국가의 기억 속에 자신들의 기억이 자리할 것을 요구한다. 다양한 기억의 집단들 사이에서, 그리고 각 집단들 내부에서 진행되는 헤게모니 싸움과 이들 집단과 국가 간의 기억을 둘러싼 투쟁은 결국 공적기억과 주류기억으로 자리하려는 치열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의 전유와 기억의 투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알제리전쟁 기념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해봄과 동시에, 본 논문에서는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역사의 하위 범주로 종속된 이들의 기억 또한 복원해보고자 한다. 역사 속에 파묻혀 잠들어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고 지워진 목소리의 흔적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기억과 기념행사’에서 배제된 ‘잊혀진 기억’들을 살펴보고, 잊혀진 이들의 잊혀지지 않은 상흔을 찾아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정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여타의 희생자에 대한 배제, 혹은 희생을 미화하는 일방적인 기념 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기념 문화의 가능성 또한 타진해보고자 한다.

II. 알제리전쟁 기억의 주기(週期): 망각에서 ‘기억과잉’으로

프랑스 역사가 앙리 루소(Henry Rousso)는 프랑스인들의 ‘비시(Vichy)에 대한 기억’과 ‘알제리전쟁에 대한 기억’은 같은 기억의 주기를 따른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알제리전쟁의 기억은, 비시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국면(종결, 기억상실, 상기, 기억과잉)으로 이루어진 기억의 주기를 경험한다.[4]

첫 번째 국면은 사면법[5]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던 ‘위기의 제거’ 국면이다. 2차 대전과 알제리전쟁기간 중에 저질러진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사면해주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비시 문제와 알제리 문제를 서둘러 청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Henry Rousso, “La guerre d’Algérie, la mémoire de Vichy”, *L’Histoire*, no. 266(juin 2002).

5) ‘망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 기원을 둔 사면(赦免)은 지난 과오를 잊을 것을 규정하며, 과거에 저질러진 범법행위를 규명하거나 상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가할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www.kci.go.kr

종전 직후, 알제리전쟁의 상흔을 봉합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움직임은 알제리 문제에 대한 사면조치로 구체화되었다. 알제리의 '민족해방전선(FLN: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이나, 프랑스의 '비밀군사조직(OAS: Organisation de l'armée secrète)', 그리고 프랑스 군대 등에 의해 자행된 모든 전범 행위들은 용서되었고 망각되었다. 적어도 4개의 사면법이 '알제리전쟁의 희생자들'의 사법상의 의뢰를 금지했던 것이다. 1962년 3월에 체결된 에비앙 조약(accords d'Evian)에 알제리전쟁 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 사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항 하나가 삽입되었다.[6] 1964년 12월, 알제리 독립에 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 비밀결사 단체인 '비밀군사조직'의 일부 단원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내려진 데 뒤이어, 1968년 7월에는 알제리 사건에 관련된 모든 형사 범죄를 취하하는 법령이 통과되었다. 1981년에 탄생한 사회당 정권은 이듬해 알제리전쟁 종전 20주기를 맞아 국민적 화합과 용서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1961년 4월 알제(Alger)에서의 군사 폭동을 통해 프랑스 정부 전복 기도에 가담했던 항명장군들과 휘하 장교들을 모두 복권시키는 조치를 발표했다.

비시체제하에서 행해진 전범행위와는 다르게 '식민지 범죄'는 반인륜범죄나 전범행위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누구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알제리의 '민족해방전선'을 분쇄하고 테러범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1957년 개시된 '알제전투(Bataille d'Alger)'의 핵심 인물이었던 제3식민지 공수연대장 비자르(Marcel Bigeard) 중령의 경우, 이 시기 그의 명령하에 자행된 불법 처형과 고문을 이유로 법정에 소환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프랑스 특수부대 요원으로 24명의 반군을 고문, 처형했고 많은 민간인의 학살에 참여했다고 밝힌 오사레스(Paul Aussaresses) 장군은 2001년 고문의 가해 당사자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형을 언도받지는 않았다. 결국 사면법 제정과 알제리전쟁에의 적용은 고문행위, 전쟁범죄, 인종학대 등 알제리전쟁 기간 동안 자행된 모든 불법적 만행이 용서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국가의 확고한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루소가 언급한 두 번째 국면은 드골(Charles de Gaulle)이 집권하던 1960년대에 절정에 이르며 1970년대까지 지속되는 '은폐', '망각', '건망증'과 '침묵'

6) 에비앙 협약 I조 k항: "L'amnistie sera immédiatement proclamée. Les personnes détenues seront libérées(사면이 즉시 공포될 것이다. 수감되었던 이들은 석방될 것이다)."

의 국면이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시작되는 두 번째 국면의 시기에 과거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는 통제되고 억압되었다고 한다.

알제리전쟁 종결 이후, 프랑스 국민 대다수는 이 '더러운 전쟁'을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으며, 애써 잊은 척하려 했다. 전 국민적으로 수치스럽고, 거북하고, 암울한 기억으로 남는 알제리전쟁에 대해 프랑스인들은 침묵하고, 망각하며, 기억을 억제하고자 했다.[7] 프랑스 정부 역시 전쟁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며, 고문이나 약식처형이 시행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쟁을 치르고 프랑스로 돌아온 '알제리전쟁 세대'는 '그들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1960년대의 경제번영과 소비사회의 풍요에 안주한 프랑스는 지난날의 앙금을 잊고자 했으며, 전쟁 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1962년부터 1982년 사이에 쏟아져 나온 전쟁 관련 회고담, 자서전, 증언, 자기변호의 글들이 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1945년 해방을 둘러싼 다양한 기념 행위, 1968년의 사건들, 그리고 '레지스탕스 신화'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은 알제리문제를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했다.[8]

세 번째 국면은 1980년 대 이후 시작되는 '상기의 시기', 즉 '의식의 자각', '억압했던 과거의 점진적인 도래', 일종의 '기억의 회귀'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심각한 현안이었던 아랍계 이민자의 증대와 프랑스 사회에의 동화 문제를 둘러싼 프랑스인의 위기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부 '침략자들'의 증가는 알제리전쟁에서의 쓰라린 패배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좋았던 식민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른바 '알제리 향수(Nostalgeria)' 현상, 그리고 공공연히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극우파 정당인 민족전선(FN: Front national)의 상승세로 나타났다. 프랑스 사회에 만연되어 가는 이와 같은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외국인 배척 감정을 바로잡고 프랑스인의 정체

7) 그러나 이 시기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기억의 범람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1962년부터 1982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략 2천 5백 권 정도의 회고록이 출간되었는데, 대부분이 프랑스 군대에 복무한 병사, 알제리 향수에 젖어 있는 이들, 알제리의 프랑스인인 피에-느와르(pieds-noirs) 등에 의해 저술된 저서들이었다. Benjamin Stora (entretiens avec Thierry Leclère), *La guerre des mémoires: La France face à son passé colonial*(Paris: l'Aube, 2007), pp. 15-16.

8) Benjamin Stora, *La gangrène et l'oubli. La mémoire de la guerre d'Algérie* (Paris: La Découverte, 1998), pp. 220-221.

www.kci.go.kr

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식민지배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작업에 식자층을 포함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9]

마지막으로, 대략 15년 전부터, 알제리전쟁은 일종의 '기억남용'에 해당되는 '기억과잉'의 시기에 접어든다. 알제리전쟁은 점점 더 프랑스인들의 의식을 점령하며, 마음을 짓누르는 강박관념으로 자리한다고 한다.[10] 알제리전쟁에 대한 폭발적인 '기억의 성행'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증언과 공적 발언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알제리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장교들의 기억, 일반병사의 기억, '프랑스의 알제리'를 완강하게 주창했던 이들의 기억, 알제리 거주 프랑스인인 피에-느와르(pieds-noirs)의 기억, 프랑스 군대에 징집된 알제리 보충병 하르키(harki)의 기억, 알제리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족해방전선(FLN)의 기억, 알제리 독립자금 전달책으로 민족해방전선의 독립운동을 도운 프랑스 '짐꾼(porteur de valise)'[11]의 기억 등과 같은 다양한 이들의 증언들이 잇달아 소개되면서 알제리전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은 수도 많고 기억의 사연도 갖가지였지만 그것들은 그동안 모두 개인적이며 폐쇄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은폐되었던 기억들이 소통과 교류의 장에 나오면서 사적인 기억들은 공동체의 의미 있는 기억으로 전화해갔다고 한다.[12]

장-샤를 조프레(Jean-Charles Jauffret)에 의하면, '알제리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오랫동안 전쟁에 대해 얘기하기를 거부하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랫동안 '기억속의 인물'과 '침묵하는 인물'에서 '증언하는 인물'로 바뀌면서 그들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13] 벤자맹 스토

9) 이용재, 「기억의 의무와 역사교육」, 77-79쪽.
10) Henry Rousso, "La guerre d'Algérie et la culture de la mémoire", *Le Monde*(le 5, avril, 2002).
11)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알제리전쟁 당시 스스로 알제리 독립자금 전달책으로까지 나섰다.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알제리인들이 갹출한 독립지원금이 들어 있는 돈가방의 전달 책임자를 자원했던 것이다. 프랑스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그의 책임 아래 국외로 빼돌린 자금은 알제리인들의 무기 구입에 필요한 돈이었다.
12) 노서경, 「식민 지배의 기억: 알제리전쟁과 프랑스 사회」, 안병직 외 10인, 『세계의 과거사 청산』(푸른역사, 2005), 371쪽.
13) Jean-Charles Jauffret, *Des hommes et des femmes en guerre d'Algérie*(Paris: Autrement, 2003).

라(Benjamin Stora)는 장교, 징집병, 피에-느와르, 하르키의 기억과 같은 특별하고 세분된 기억들의 증가, 그리고 '뵈르(Beurs)'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자녀들과 같은 새로운 사회그룹의 범람이 '알제리 문제를 둘러싼 집단화된 기억'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프랑스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부각되었다고 주장한다.[14]

'전쟁 희생자들'의 보상금과 명예회복에 대한 요구도 언급할 수 있다. 고문의 희생자들, 피에-느와르, 하르키, 징집병 등은 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했으며, 그들의 현실적인 지위와 처우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정치권과 정치 지도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전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주목된다. 1999년 6월 법령에 의해, 오랫동안 '알제리 사건', '알제리에서의 질서유지작전'이라는 명칭이 '알제리전쟁'으로 변경되었다. 알제리전쟁이 법적으로 제 이름을 찾게 됨에 따라 200만에 달하는 참전용사들은 종전 37년 만에 참전 군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있었다.

1992년 7월, 알제리전쟁과 관련된 군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그간 금지되었던 관련 문서고가 일반연구자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알제리전쟁사 연구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쟁 기간 중 프랑스 군대에 의해 자행된 고문 문제를 다룬 라파엘 브랑쉬(Raphaëlle Branche)의 저서[15]나 군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한 실비 테노(Sylvie Thénault)의 박사논문[16]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의 문제를 프랑스인들의 집단기억 속에 각인시킨 계기를 마련한 저서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과거를 사법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문제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알제리에서의 고문문제와 관련된 '오사레스 사건(affaire Aussaresses)'[17]을 계기로 전쟁

14) Benjamin Stora, *La guerre des mémoires*, pp. 45-47.
15) Raphaëlle Branche, *La torture et l'armée pendant la guerre d'Algérie*(Paris: Gallimard, 2001).
16) Sylvie Thénault, *Une drôle de justice. Les magistrats dans la guerre d'Algérie* (Paris: La Découverte, 2001).
17) 전쟁 당시 알제리 주둔 프랑스 특수부대의 책임자였던 폴 오사레스 장군은 2000년 11월 『르몽드(*Le Monde*)』와의 회견에서 당시 고문은 일반화된 것이었으며, 자신 스스로도 24명의 알제리인을 살해했다고 시인하였다. 고문은 '능률적'이었고 익숙해서 양

www.kci.go.kr

중의 잔혹행위와 전쟁범죄에 대해 규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정부는 2001년 12월 초 알제리전쟁 기간 프랑스군의 잔혹행위에 대한 역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역사가들의 연구 작업도 활기를 띠었다. 희생자, 후손, 후손들이 만든 협회, 정부 인사 등 많은 이들이 '기억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집단화된 기억투쟁'을 야기하는 '기억의 의무'라는 개념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역사가들 특별히 알제리전쟁 전문 프랑스와 알제리 출신 역사가들은 역사가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를 있게 하고, '증언의 단계로부터 역사의 단계'로 이행케 한 '기억의 회귀과정'에 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증언한다.[18]

2005년 2월23일 법령은 알제리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프랑스의 해외식민지(영토)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권장하는 4조항은 연구자나 교사들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역사만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비판사가인 리오쥐(Claude Liauzu)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결집되고, 식민지 인식을 둘러싼 좌·우 정당 간의 극심한 대립과 논쟁이 확산되면서 '기억들 간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알제리전쟁 기억의 주기와 관련하여, '알제리 전문가'인 기 페르빌레(Guy Pervillé)는 '비시 전문가'인 앙리 루소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페르빌레는 2008년 초 출간된 『알제리전쟁: 역사와 기억』[19]이라는 저서에서 1962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인들이 알제리전쟁에 대해 일종의 '기억상실'의 시기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뒤이어 1997년부터 현재까지, 범람하는 기억으로 인한 '기억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두 역사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망각의 시기를 거쳐 기억과잉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듯하다.

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털어놓아 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음 해 출간된 『특수임무: 알제리 1955-1957(*Services spéciaux: Algérie 1955-1957*)』이란 그의 자서전에서 고문의 실상과 프랑스군이 알제리 민족해방전선과 전투할 때 행한 처형 장면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프랑스인권연맹은 오사레스 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제사면위원회도 그의 전범 행위에 대한 완전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프랑스 항소원은 2002년 오사레스에게 반인륜죄의 죄목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 프랑스 형법은 알제리전쟁 중 잔혹행위에 대해 전범 기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18) Jacques Frémeaux, Jean-Charles Jauffret et Benjamin Stora, "La guerre d'Algérie, le temps des historiens", *Guerre d'Algérie Magazine*, no. 1(janvier-février 2002).

19) Guy Pervillé(dir.), *La guerre d'Algérie, histoire et mémoire, Histoire de notre temps*(Bordeaux: Scérén/CRDP d'Aquitaine, 2008).

최근의 논의를 통해 프랑스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알제리전쟁이라는 (탈)식민주의 문제를 화두로 삼고 과거에 대한 일대 청산을 하게 된다. 기억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알제리문제와 관련하여 보이는 정치적 회피나 미온적 반응은 알제리전쟁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프랑스 국가의 태도는 별개의 것이라는 국가의 인식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기억의 전유와 공식적 기념행위

1980년대 후반부터, '전쟁의 희생자들', 그 후손들, 다양한 전쟁 관련 단체들, 정치 지도자들은 저마다 '기억의 의무'를 이야기하며 알제리전쟁을 둘러싼 '기억의 투쟁'에 참여했다. 정부는 기념물 설립, 기념일 제정, 기념식 행사 등을 통해 기억의 의무를 실현함과 동시에, 공적 기억의 창출을 통해 기억을 전유하고자 함으로써 '기억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알제리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의 기념물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어떤 사건도 공식적으로 기념될 수 없었다.[20] 1990년대 들어 알제리전쟁에 대한 기억의 성행에 힘입어 관련 사안들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인정과 제도적 보장이 뒤따르기 시작했다.

1996년, 알제리전쟁 기념물로는 처음으로, 파리 19구(square de la Butte du Chapeau-Rouge)에 건립된 '전몰자위령탑(monument à la mémoire des victimes civiles et militaires tombées en Afrique du Nord de 1952 à 1962)'은 북아프리카에서 전사한 프랑스 시민과 병사 희생자를 위한 기념물이다. 1차 대전 종전기념일인 11월 11일에 거행된 제막식에서, 자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은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과, 132년 동안 그들의 부모들의 노력으로 비옥해진 프랑스의 영토, 알제리에서 사망한 시민들"을 추모했다.

20) 종전기념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Frédéric Rouyard, "La bataille du 19 mars", Jean-Pierre Rioux (dir.), *La guerre d'Algérie et les Français*(Paris: Fayard, 1990), pp. 545-552를 참조하라.

www.kci.go.kr

그로부터 5년 후, 2001년 10월 17일, 파리 시장인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는 생-미셸 다리(Pont Saint-Michel)에 "1961년 10월 17일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으로 사망한 수많은 알제리인들을 추모하는" 기념 동판을 설치했다.

프랑스 현대사에 있어 1961년 10월 17일의 사건 만큼 많은 논란을 야기한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만 명 이상의 알제리인들이 체포되고, 집단으로 수용되어 폭력과 고문을 당했으며, 수 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프랑스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었다.[21] 국가가 자행한 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폭력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당시부터 사건의 부당함을 캐내고 지속적으로 공론화한 지식인과 운동 단체들의 행동이 있었고, 2000년, '1961년 10월 17일의 망각반대협회(L'association "17 octobre 1961: contre l'oubli")'는 각계 인사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였으며, 마침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념의 장소를 가질 수 있었다. 정부는 1961년 10월 17일 사건에 대한 규명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사는 없었지만, 희생자를 위한 추모 동판을 파리 센(Seine) 강변에 설치했던 것이다.

이듬해인 2002년 12월 5일, 알제리전쟁 종전 40주년을 기념하여 자크 시락에 의해 제막된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Mémorial national de la guerre d'Algérie et des combats du Maroc et de Tunisie)'[22]은 1952년부터 1962년 사이, 알제리전쟁과 모로코와 튀니지 전투에서 사망한 프랑스 군인과 무

21) 20여 년 전부터, 1961년 10월 17일 사건의 정확한 알제리인 사망자 수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정부가 구성한 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수치와 전문역사가들의 그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사건 직후 프랑스 정부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998년의 만델케른(Mandelkern) 위원회와 1999년의 제로니미(Géronimi) 위원회를 통해 사망자수를 '수 십 명'으로 수정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숫자싸움(bataille des chiffres)'이 벌어지는데, '1961년 10월 17일의 망각반대협회' 위원인 에노디(Jean-Luc Einaudi)의 경우 325명으로 추산하는데 반해, 경찰청 자료를 참조한 브뤼네(Jean-Paul Brunet)는 에노디가 지나치게 숫자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30-50명의 사망자 수치를 제시한다. 또 다른 역사가인 부리샤르(Pierre Brichard)의 경우에는 1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Jim House et Neil MacMaster, *Paris 1961. Les Algériens, la terreur d'Etat et la mémoire* (Paris: Tallandier, 2008), pp. 203-224.

22) 이 기념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 mémorial pour la guerre d'Algérie", *Les Chemins de la Mémoire*, no. 112(novembre 2002)를 참조하라.

그림 3,4) 파리의 생-미셸 다리(Pont St. Michel)와 파리 근교 오베르빌리에(Aubervilliers)에 설치된 1961년 10월 17일 알제리 시위대 사망자 추모 동판.

슬림 보충병, 하르키 모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현재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인 알제리전쟁 기념물이다.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친" 2만 3천 명의 확인된 병사들의 이름과 이들을 추모하는 내용이 전자문자로 소개되는 이 기념물은 프랑스 국기 색깔인 파랑, 하양, 빨강의 높이 5.85 미터, 폭 0.6 미터의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23]

2 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둥은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기둥 앞에는 공식적 기념행사를 위해 가로 20 미터, 세로 15 미터 정도의 포석을 깐 바닥으로 장식된 공간을 마련했다. 에펠탑 근처 센 강변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 기존의 전쟁(전몰) 기념비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모습(좀 더 현대적이긴 하지만)을 띠지만 이 기념물을 통해 전달되는 기억은 보다 '역동적이고 동태적'이라고 한다. 새롭게 발굴된 전사자 명단이 계속 추가되는 등, 전자문자의 내용(전사자 명단, 전쟁 소개 등)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23) 이 기념물에서는 사망자 명단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1,343,000명의 소집병과 재소집병; 405,000명의 직업 군인과 지원병; 200,000명에 이르는 보충병들이 북아프리카의 여러 전선에서,
- 알제리: 1954년 11월 1일부터 1962년 7월 2일까지
- 모로코: 1953년 6월 1일부터 1956년 3월 2일까지
- 튀니지: 1952년 1월 1일부터 1956년 3월 20일까지 복무했다."

www.kci.go.kr

그림 5,6)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과 기둥 오른쪽 옆에 설치된 전자석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정부에 의해 1998년에 설립 계획안이 입안되었으며, 2001년 10월부터 건립공사가 진행되었던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 제막식에서 자크 시락은 '기억의 의무'를 다짐하며 "1914년과 1940년의 용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우리 조국의 기억 속에 제자리를 찾게 된 북아프리카의 병사들"에게 헌사를 바쳤다.[24] 종전 40년 만에 알제리전쟁은 출신을 불문하고 프랑스를 위해 희생한 모든 병사들을 위한 공식적인 '추모의 장소'를 갖게 된 것이다.

알제리전쟁의 공식적 기념일(추모일)을 언제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다양한 '기억집단' 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 1962년 3월 19일, 에비앙 협약에 의해 3만 명의 프랑스 측 희생자와 30만 명의 알제리 측 희생자를 양산한 알제리전쟁이 종결된 날로 정할지;
- 1961년 10월 17일, 파리지역에서 알제리인들의 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무력으로 진압하고 시위대를 센 강에 던져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날로 정할지 ;
- 1962년 2월 8일, '노동총동맹(CGT)'과 '프랑스공산당(PCF)'의 주도하에 '비밀군사조직(OAS)'에 반대하는 샤론(Charonne) 지하철역에서의 시위

24) *Le Monde*(le 7 décembre 2002).

를 정부가 진압하는 가운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날로 정할지 ;

- 1962년 3월 26일, 알제의 이슬리(Isly) 거리에서의 총살이 벌어진 날, 즉, '비밀군사조직(OAS)'의 선동에 거리로 나온 시위대에 군대가 총격을 가하여 알제리의 유럽인들(pieds-noirs) 가운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날로 정할지 ;
- 1962년 7월 5일, 알제리 독립일이지만, 알제리 '민족해방군대(ALN: Armée de Libération nationale)'에 의해 오랑(Oran)에서 200내지 300명의 피에-느와르가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 결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2003년 9월 17일, 대통령이 주제하는 국무 회의는 "알제리전쟁과 모로코와 튀니지 전투에서의 사망자 추모의 날(La journée nationale d'hommage aux morts de la guerre d'Algérie et des combats du Maroc et de la Tunisie)"을 제정하고 12월 5일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날은 알제리전쟁 중 발생한 어떤 사건과도 연관이 없는, 2002년 자크 시락에 의해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의 제막식이 이루어진 날이었다.

또 다른 알제리전쟁 공식기념일은 하르키와 보충병 추모의 날(La journée nationale d'hommage aux harkis et autres membres des formations supplétives)이다.

알제리전쟁 참전군인 중에는 프랑스 출신뿐 아니라 알제리 출신의 병사들도 다수 존재했다. 긴 식민 지배 기간 프랑스군에 복무한 알제리 무슬림 보충병, 특히 알제리 전쟁 당시 프랑스 쪽에 가담하여 전쟁을 수행한 알제리 출신 군인을 '하르키(harki)'라 부른다.[25] 하르키는 독립을 갈구한 알제리인들에게는 '배신자'요, 프랑스인들에게는 '조국을 등진' 용병에 불과한 불명예스런 이름이다. 알제리전쟁에서 자발적이건 강제에 의해서건 하르키 50만 명이 모집됐으며, 이들 중 15만 명이 프랑스 군대 철수 이후 프랑스 정부의 의도적인 무관심 속에 알제리 체제에 의해 고문과 학살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어렵게 프랑스로 건너온 하르키와 그 가족들은 비록 합법적인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25) 하르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과 저서를 참조하라: 이영목, 「정체성, 기억, 역사: 아르키와 그 자녀들의 경우」, 『불어불문학연구』, 66권(2006), 303-323쪽; Boussad Azni, *Harkis, crime d'Etat. Généalogie d'un abandon*(Paris: Ramsay, 2002); Abd-El-Aziz Meliani, *Le drame des harkis*(Paris: Perrin, 2002).

www.kci.go.kr

전쟁이 종결되고 40년이 지난 후에야, 자크 시락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알제리전쟁 기간 중 프랑스 편에서 싸운 알제리 보충병에 대한 감사의 날”이 2001년 9월 25일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었으며, 2003년 3월 31일 법령에 의해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기념될 수 있게 되었다.[26]

2004년 6월11일에는 프랑스 국회에서 “하르키의 노고와 고통을 인정한다”는 법이 통과됐다. 에비앙조약 이후 42년 만에 채택된 이 법안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에서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참여한 내국인들의 고통과 학살에 대한 대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의 여파로 하르키에 대한 배상금 내역이 늘어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특혜 정책도 늘어났다. 하르키를 버린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하르키를 프랑스 공화국에 복무한 전투원으로서 그 공로를 인정한 것이었다.

IV. 기억의 투쟁과 ‘공동체주의(communautarisme)’[27]

알제리전쟁과 모로코와 튀니지 전투에서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알제리전쟁 기념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 4일, 37만 명의 재향군인이 가입한 ‘알제리전쟁 참전용사전국연합(FNACA)’은 다음날로 예정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2003년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정된 이 기념일은 어떤 역사적 의미도 없으며, 과거 역사에 대해 혼란

26) Décret du 31 mars 2003,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u 2 avril 2003. “Hommage aux Harkis”, *Les Chemins de la Mémoire*, no. 129(juin 2003).

27) 각각의 공동체를 인정하며, 그 구성원들이 ‘주체’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주창하고, 좀 더 바람직한 삶의 형태를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체주의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공유재산제나 정치권력의 평등을 내세우는 좌파적 비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근대성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현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며 연대의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다양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합리성과 도덕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공동체주의 속에 내재된 폐쇄성과 비합리성, 집단 이기주의, 이질적이고 경쟁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의 부재 등을 통해 나타나는 알제리전쟁 관련 공동체(집단)들 간의 기억의 투쟁에 주목하고자 한다.

만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1962년 4월 8일의 국민투표를 통해 90.7%의 프랑스인들이 지지를 표명했던 알제리전쟁 종전일인 1962년 3월 19일이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차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과는 달리 알제리전쟁 참전병사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적 영예로 보답 받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세대였다. 1999년 10월 18일 법령에 의해 ‘질서유지작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알제리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은 재향군인으로서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기념날짜를 둘러싼 의회에서의 논의는 휴전이 선포되고 에비앙 조약이 조인된 1962년 3월 19일을 국가적으로 기념하자는 이들과, 패배를 기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기억의 투쟁’을 야기시켰다.[28]

2007년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알제리전쟁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알제리전쟁 기념일(기억일)로는 종전일인 3월 19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국가에 의해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된,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 제막식이 거행된, 12월 5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 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29]

질문 1: 1999년 알제리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2002년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 제막식 이후, 북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알제리전쟁 기간 동안 전사한 프랑스 병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국가차원의 기념식이 매년 거행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8) 알제리 참전군인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중 가장 중요한 ‘알제리전쟁 재향군인 전국연합(FNACA)’과 좌파성향의 ‘재향군인 공화주의자협회(ARAC: Association républicaine des anciens combattants)’는 알제리에서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에비앙 조약이 발효된 3월 19일을 알제리전쟁 기념일(추모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날은 알제리의 독립을 축하하는 날이며, 몇몇 재향군인들이 느끼기에 프랑스에 의해 배신당한 날로 인식되었기에 다른 협회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29) 여론조사 기관인 IFOP(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에서 2007년 2월 1, 2일에 걸쳐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2월 5일을 알제리전쟁 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직후인 2003년 10월의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응답자의 79%가 3월 19일을 기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www.kci.go.kr

	2007년 2월 (%)	2004년 3월 (%)	2003년 1월 (%)
정당하다	89	81	78
정당하지 않다	10	17	18
무응답	1	2	4

질문 1: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두 날짜 중 어느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 2월 (%)	2004년 3월 (%)	2003년 10월 (%)	2003년 1월 (%)
공식적인 종전일인 1962년 3월 19일을 기념하는 의미의 3월 19일	86	81	79	75
대통령에 의해 알제리전쟁 국립기념물 제막식이 거행된 2002년 12월 5일을 기념하는 의미의 12월 5일	13	12	17	15
무응답	1	7	4	10

이 결과는 정부가 제정한 공식 기념일인 12월 5일에 대해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는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기념식에 대한 거부와 국가가 의도하는 기억의 전유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실제 FNACA와 같은 재향군인 협회는 국가가 공식적인 기념행사만을 강조하며, 참전용사들의 기억을 억압한다고 주장한다.[30]

종전 이후부터, 피에-느와르, 참전군인, 하르키 등 다양한 공동체 집단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형성해왔다. 이들 각각의 단체들 내부에서는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자기 분열을 통해 다양한 기억(집단)들을 파생시키기도 하였다. 국가 대 공동체, 공동체 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기억을 둘러싼 투쟁은 자신들 고유의 기억을 '공적기억화' 하며, 주류기억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투쟁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알제리전쟁 기념일 논의를 둘러싸고 확연하게 드러났다. 21세기 초엽에 프랑스에는 공동의 기억으로 규정짓기 힘든 부분적이고, 개별적이며, 다양한 기억을 가진 알제리전쟁 관련 기억의 담지자들-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5

30) http://www.fnaca.org (2008. 4. 10)

백만에 이른다.[31] 이들로 구성된 수많은 공동체들은 저마다 자신들을 위한 기념비와 기념식을 요구한다. 국가의 공식적 기억 속에 자신들이 정당하게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억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알제리전쟁에 대한 기억(집단)의 범람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기억의 단체들은 기념비와 박물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징적이라고 인식한 특정 장소와 날짜에 집착하였다. 하르키들은 전쟁 직후 프랑스에 도착하여 머물렀던 수용소를 파괴해줄 것을 요청했다. 몇몇 피에-느와르는 1962년 7월 5일, 오랑(Oran)에서 납치된 유럽인들을 기억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향군인들은, 20년이 넘게, 참전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1999년 6월, '알제리전쟁'이라는 법적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협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재향군인 단체들(FNACA, Arac(Association républicaine des anciens combattants. 재향군인 공화주의자협회), Union nationale des combattants(재향군인 전국연합))은 알제리전쟁의 실체를 둘러싼 의회에서의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32]

올 해(2008) 초, 프랑스 정부는 종전일인 3월 19일이 '기념될 만한 날'이라고 언급했지만 범람하는 사회단체(공동체) 간의 알제리전쟁을 둘러싼 '기억의 투쟁'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념행사와 기념일 제정, 그리고 다양한 전쟁 관련 공동체가 기획하는 그것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알제리전쟁 관련 단체 내부의,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간에 전개되는 '기억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전후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알제리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존재하며, 전쟁의 희생자 모두를 위한 기념행위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IV. 맺음말

프랑스는 최근 10여 년 동안 알제리전쟁에 대한 다양한 기념행위를 통해 '기억의 의무'를 완수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억에의 의지'는 무엇을

31) Mohammed Harbi et Benjamin Stora, *La Guerre d'Algérie. 1954-2004: la fin de l'amnésie*(Paris: Robert Laffont, 2004), p. 9.
32) Benjamin Stora, *La guerre des mémoires*, p. 19.

www.kci.go.kr

의미하는가? 국가는 현재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전유하려 한다. 극우파로부터 극좌파에 이르는 매우 대척점에 있는 단체들과 세력들 역시 자신들의 기억이 공식기억이 되게끔 끊임없이 기억의 투쟁을 벌인다.

몇몇 지식인들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최근 식민지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이러한 국가 대 공동체, 각각의 공동체 내부, 그리고 서로 다른 공동체들 간의 '기억들의 전쟁'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 "너무 많은 기억들과 망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 과거를 둘러싼 경쟁은 종종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되며, 진정한 학문적 작업을 훼손시키며 진행된다고 한다. 사실과 텍스트의 엄격한 분석만이 단순화와 서로에 대한 비난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에 의해 전유된 기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공공의 기억으로 복원하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알제리전쟁을 이야기하고 기념하는 것은 성인(聖人)의 전기를 기술하고 신화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왜 알제리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프랑스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으며, 그들이 프랑스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증언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알제리전쟁의 희생자들' 모두를 기념하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살상과 폭력을 근거로 한 국가의 힘과 제국의 확장이 애국과 수호의 이념으로 포장된 '기존의 전쟁기념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상흔을 치유하고 죽은자들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 말이다. 다양한 기억들이 소통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은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의 알제리전쟁에 대한 기념행위는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이나 알제리(인)에 대한 사과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철저히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프랑스인이나 그들에게 협력했던 알제리 출신 병사들에 대한 기념이고 추모일뿐이었다. 132년 동안의 프랑스 지배로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던, 당연히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했던 알제리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요구는 지나친 것일까?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투고일자: 2008. 6. 30, 심사일자: 2008. 8. 4, 게재확정일자: 2008. 8. 10〉

주제어 : 알제리전쟁(Algerian War), 기억의 전유(monopoly of memory), 기억의 투쟁(struggle of memory), 기념(commemoration) 공동체주의(communalism)

〈참고문헌〉

노서경, 「알제리전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과거'성찰: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2호, 2005: 61-91.

박단, 「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인의 프랑스로의 이주와 정착」, 『한국프랑스학논집』, 53호, 2006: 389-406.

이영목, 「정체성, 기억, 역사: 아르키와 그 자녀들의 경우」, 『불어불문학연구』, 66권, 2006: 303-323.

이용재, 「기억의 의무와 역사교육: 알제리전쟁과 프랑스의 역사교과서」, 『서양사론』, 77호, 2003: 73-99.

Azni, Boussa, *Harkis, crime d'Etat. Généalogie d'un abandon*, Paris: Ramsay, 2002.

Branche, Raphaëlle, *La torture et l'armé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Paris: Gallimard, 2001.

Le Comité Nationale de la FNACA, 2008. http://www.fnaca.org (2008. 4. 10)

Frémeaux, J., Jauffret, J.-Ch. et Stora, B., "La guerre d'Algérie, le temps des historiens", *Guerre d'Algérie Magazine*, no 1, 2002: 5-7.

Harbi, Mohammed, et Stora, Benjamin, *La Guerre d'Algérie. 1954-2004: la fin de l'amnésie*, Paris: Robert Laffont, 2004,

House, Jim et MacMaster, Neil, *Paris 1961. Les Algériens, la terreur d'Etat et la mémoire*, Paris: Tallandier, 2008,

Jauffret, Jean-Charles, *Des hommes et des femmes en guerre d'Algérie*, Paris: Autrement, 2003.

Meliani, Abd-El-Aziz, *Le drame des harkis*, Paris: Perrin, 2002.

Pervillé, Guy, dir., *La guerre d'Algérie, histoire et mémoire, Histoire de notre temps*, Bordeaux: Scérén/CRDP d'Aquitaine, 2008.

Rioux, Jean-Pierre, dir., *La guerre d'Algérie et les Français*, Paris: Fayard, 1990,

Stora, Benjamin, *La gangrène et l'oubli. La mémoire de la guerre d'Algérie*, Paris: La Découverte, 1998,

_____(entretiens avec Thierry Leclère), *La guerre des*

www.kci.go.kr

mémoires: *La France face à son passé colonial*, Paris: l'Aube, 2007,
Thénault, Sylvie, *Une drôle de justice. Les magistrats dans la guerre d'Algérie*, Paris: La Découverte, 2001.

〈Résumé〉

Monopole des mémoires et guerres des mémoires:
Réflexion critique sur la commémoration de la guerre d'Algérie

Jae-Won LEE

Depuis 10 années, la France essaie d'accomplir le 'devoir des mémoires' par divers commémoratoins sur la guerre d'Algérie. Cette volonté de mémoire renvoie à un malaise de l'identité française. Il est alors évident que des sensibilités se tournent vers le passé et que des forces cherchent à instrumentaliser ce malaise, s'emparent du passé pour contrôler le présent et pour défendre la nation. La mémoire de la société française, c'est un capital que des forces très opposées, de l'extrême droite à l'extrême gauche, cherchent à utiliser.

Quelques intellectuels français s'inquiètent de la 'guerre des mémoires' qui se développe, en France et en Europe, autour de la colonisation. "Trop de mémoires, trop d'oublis", estiment-ils. Car cette guerre, cette mise en concurrence des passés, s'effectue souvent au détriment d'un vrai travail scientifique. L'analyse rigoureuse des faits et des textes laisse alors la place aux simplifications et aux anathèmes.

www.kci.go.kr

〈Summary〉

Monopoly and Struggle of memory: Critical Reflection on the Algerian War Commemoration

Jae-Won LEE

During these ten years, France have tried to complete its 'duty of memory' through various commemorative acts on Algerian War. Then, what does that mean 'the will for memory'? A nation intends to monopolize the memories of the past to control the present. The opposite groups and forces from extreme right to extreme left also struggle for memory to make theirs of the official ones.

Some intellectuals worry about this 'war of memories' between nation and community, the inside of each community, and different communities. They say there are "too many memories and oblivions". This war and competition for the past often transform into the fight for hegemony destroying true work of study. Only strict analysis of the fact and the text can replace the simplification and blame for one another.

www.kci.go.kr